



순창군 순창읍 교성마을 순창향교에서 3일 전통혼례 시연행사가 거행된다.

백년가약 전통혼례식 거행

순창향교서 오늘 오전 11시 다문화가정 두쌍 합동진행

전북도와 순창군이 후원하고, 순창향교가 주관하는 2017년 전통혼례 시연행사가 순창읍 교성마을 순창향교 명륜당 앞 마당에서 3일 오전 11시에 거행된다.

순창향교(전교 김갑용)는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두 쌍의 다문화가정들을 선정해 '전통혼례 합동결혼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통혼례 시연행사는 2017년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전통예절 및 선비문화 체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전통놀이와 문화유적 답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산업화와 현대화로 사라져가는 전통혼례 문화를 다문화가정들 대

상으로 재현함으로써 다문화가정과 주민이 함께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는 먼저 10시 40분에 신랑 홍석희·신부 나카무라 도모코(금과면, 일본)씨와 신랑 류재근·신부 부여개우(금과면, 태국)씨 부부 2쌍이 각각 탄 말과 가마의 초행(初行) 행렬이 순창군청 민원과 현관 앞을 출발하면서 시작되며, 순창문화원이 지원한 취타대 행렬이 그 뒤를 따른다.

그리고 11시, 순창향교 경내에 도착하여 향교 유림, 주민, 가족과 친지들이 참석할 가운데 전안례(奠·禮), 교배(交拜), 합근례(合·禮), 현구고례(見舅姑禮) 순으로 혼례를 진행하고, 부부의 아름다운 결합과 행복한 가정 생활을 기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참여자들은 신랑·신부에게 밤과 대추를 던지고, 자손 대대로

번영과 운택한 생활을 누리라는 덕담과 축복을 전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잔치 마당을 펼칠 계획이다.

순창향교 김갑용 전교는 "현대식 결혼식에 비해 절차가 복잡한 부분도 있지만, 백년해로와 부부간의 질서 등 사라져가는 우리의 전통혼례와 혼인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싶었다"며, "순창향교는 지난해에도 복흥면 추령장승촌에서 전통혼례를 주관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이러한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의 자긍심과 가치를 재발견하게 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순창군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이 즐겁게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문화의 특화를 통한 토탈관광 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생물테러 대응 체계 '이상 무'

임실군, 대비 능력 종합평가 전국 지자체 우수기관 선정

임실군이 질병관리본부 주최 '2017 생물테러 대비·대응 능력 종합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2일 대구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임실군 보건의료원이 생물테러 우수기관으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평가는 각 기관의 생물테러 대비대응 업무기여도와 모의훈련 수행, 대응역량평가, 생물테러 대비 및 대응장비 보관 상태, 응급실증후군 감시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생물테러 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관련분야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9월, 임실군 민회관에서 경찰서와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를 이뤄 생물테러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훈련에서는 훈련실질 및 대응내용이 적절하게 묘사됐으며, 생물테러를 대비해 개인보호장비와 비축물자를 적재보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대응 능력을 선보여 우수한 대응역량을 보여줬다.

심민 군 수는 "우리 임실군이 생물테러에 대비한 대응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우수기관 표창까지 받게 된 것은 무척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표창에 머무르지 않고 생물테러에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하고 체계적인 생물테러 관리로 군민안전과 건강함을 도모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순창군이 농촌 어르신들의 공동생활 공간인 경로당의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군은 지난달까지 경로당 별로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접수 받은 결과 총 370개소 경로당 중에서 75.4%에 해당하는 279개 경로당에서 신청했다.

이에 따라 8,651명의 경로당 이용 등록 회원 수 중에서 71%인 6,141명이 급식지원을 받게 됐다.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는 50세미만이 14명, 60세미만이 46명, 70세미만이 120명, 70세 이상이 97명으로 모두 277명이 파견된다.

여기에 소요되는 급식도우미 활동비는 2억5129만4000원이 투입되며, 도우미는 노인일자리 경로를 연중 가장 많이 이용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 지원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임실군은 가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오는 6일부터 실시한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소비자감시원 6명, 위생팀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어린이집 급식소, 지역아동센터 관리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급식소 시설관리, 개인위생 관리, 식품의 원료사용 적정성, 원료보관실, 조리실 청결관리, 방장·방풍 보관기준 적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음식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예방 교육에 나서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식중독은 여름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은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18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위원회를 열고 총 22건의 주민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순창군 주민참여예산 14개사업 확정

총 43억6600만원 반영 결정

순창군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한 '2018년 주민참여예산'을 확정해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군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18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위원회를 열고 총 22건의 주민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주민참여예산 편성위원회는 장명균부군수를 비롯해 양동영 기획실장, 한재현 농업순창군지부장, 최기환 순정축협장, 김상범 산림조합장, 김중국 주민자치협의회장, 김삼순 여성단체협의회장 및 각 읍면 주민 등 총 40여명이 참여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된 주민참여예산은 9월 한 달 동안 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등을 통해 접수한 22건의 사업예산으로 97억 6천 7백만원 규모다.

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최종 14건 43억 6600만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4개 사업은 순창읍내시가지인도정비, 순창여중 앞 도로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 아름다운 양지천 가꾸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개설, 하천정비 및 준설, 승강장 비가림 설치, 주차장 조성, 상수도 설치, 체육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심의가 완료된 예산은 순창군의 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뒤 군 홈페이지에 공개 될 예정이다.

장명균 부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은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제안한 만큼 심의 논의된 사업들은 내년 예산에 반영 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며 "2018년 상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혼불' 속 시집오는 산행길 재현

남원시 노봉혼불문학마을 주민 100여명 2Km구간 도보

남원시 사매면 노봉혼불문학마을이 주최하는 '제4회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가 오는 4일 소설 '혼불'의 배경지인 노봉혼불문학마을 일원((구)서도역~혼불문학관)에서 열린다.

신행길 축제는 소설 '혼불' 속 종가택 효원이 서도역을 통해 마을까지 시집오는 신행길을 재현하는 축제제로 전통혼례, 단자놀이, 다채로운 농경문화 체험행사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신행길은 (구)서도역에서 출발, 혼불문학관까지 약2km 거리

를 신랑, 신부와 함께 주민 약100여 명이 걸으며 혼불 속 장면을 직접 눈과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이다.

이번 축제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되며 마을의 혼불배경지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형 축제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2014년을 처음 시작되어 4년 연속 시행됨으로써 해마다 길이를 더 하고 있으며 사라져 가는 전통혼례의 신행길을 재현해 혼불마을을 자랑스러운 고취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

바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노봉혼불문학마을 주민들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개개인의 분야별 역할을 정하고, 환경정비 등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푸근한 고향의 정을 나누고 다시 찾고 싶은 농촌마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촌 마을을 지키고 가꾸는 것은 농토를 일구는 일 외에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숨어 있는 자원을 찾아 내 자랑하는 것 또한,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며 "이번 축제가 마을 정통을 잇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이 화합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결속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향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권주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과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